

주간 해외 에너지 정책 동향

Issue 23 / 2007.8.8

□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사상 최고치 기록

- NYMEX 9월 인도분 WTI 선물가격은 8월 1일에 배럴 당 \$78.77까지 상승하여 지난해 7월 14일에 기록한 최고치인 배럴당 \$78.40을 넘어섰음.
- 이날 유가가 치솟은 것은 미국 에너지부의 원유재고 감소 발표에 따른 것인데, 7월 28일 기준 미국 원유재고는 예상보다 많은 650만 배럴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음.
- 원유재고 감소의 주된 원인은 미국 정유공장의 가동율 증가로 인한 원유투입 증가에 따른 것임.
- OPEC의 오는 9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증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함.
- MF Global사는 현재 원유재고는 충분하지만 정유시설의 가동률을 감안할 때 원유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 시대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언급함.

(AP, NYT, Reuters, 2007.8.2)

NEWS

-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사상 최고치 기록
- 재투자 외면하는 세계 주요 석유회사들
- 미국, 원자력발전소 신규착공 인가신청 접수
- 아르헨티나, 우라늄 재생산 계획
- 가스프롬, 벨로루시 가스 공급 45% 감축 위협
- OPEC, 적극적 유전개발
- 스페인, 교토의정서 이행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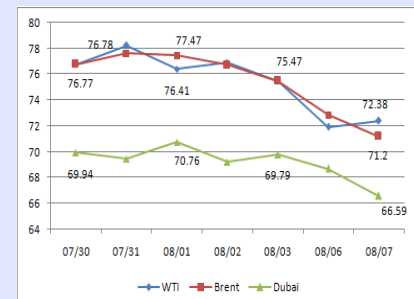
ANALYSIS

- 석유수급 불균형 지속 전망
- '06년 LNG Market Review
- 유럽의 에너지시장 개방 난항

REPORT

- 호주 LNG 프로젝트 동향

Oil Prices (Spot)



자료 : 한국석유공사



ASIA & AMERICA

□ 재투자 외면하는 세계 주요 석유회사들

- 세계 주요 석유회사들은 유가상승과 함께 많은 이익을 내고 있으나 재투자는 외면한 채 주가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지난 주 발표된 석유회사들의 수익현황에 따르면 엑손모빌과 셰브론, BP, 로열더치셸 등 4대 정유회사들은 올 상반기에 \$575억의 이익을 내는 등 불과 수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였음.
- 이들 회사는 전체 수익의 40%에 해당하는 \$229억을 자사주 매입에 지출하였으나 시설확장이나 청정연료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 특히 엑손모빌의 경우 상반기에 달성한 \$195억의 수익 가운데 무려 \$140억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으며, 기본장비 및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한 것은 \$93억에 불과함.
- 셰브론의 경우도 '05년과 '06년에 자사주 매입을 위해 \$100억을 쓴 데 이어 9월말까지 \$50억 상당의 자사주 매입이 확정돼 있고, 이사회는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추가 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엑손모빌은 과거 20년간 시설확장 등에 투자한 예산이 수익금 \$2,670억보다 많은 \$2,800억에 이른다고 반박했지만, 워싱턴 소재 미국발전센터(CAP)는 이러한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함.
- CAP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들 4대 석유회사와 코노코필립스 등 5개 회사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예산은 \$26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LA Times, 2007.8.1)

□ 미국, 원자력발전소 신규착공 인가신청 접수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인가신청을 접수함.



- 미국 콘스틸레이션 에너지사와 프랑스 아레바의 합작회사인 유니스타사가 NRC에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1기를 메릴랜드 주에 건설하는 인가신청서를 제출함.
- NRC는 8월 14일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30년 동안 동결되었던 원전의 신규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유니스타는 7월 13일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였으며, 안전평가는 내년 초에 신청할 예정임.
- 미국의 관련 규제체제는 원자력발전 건설과 완공후의 운전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고 심사하는 건설·운전 일괄인가제(COL)임.
- COL 심사가 2년 반에서 3년 정도 소요되므로 빠르면 '10년에 착공되어 '15~'16년 사이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 미국 정부가 원유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규원전 건설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104기의 원전을 보유한 미국은 '79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안전심사의 장기화, 경제성 등의 우려로 신규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미국 원자력에너지협회(NEI)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30기의 신규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12기 정도의 COL 신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朝日新聞, 2007.7.31)

□ 아르헨티나, 우라늄 재생산 계획

- 아르헨티나는 우라늄 생산을 멈춘 지 10년 만에 Salta 지역에서 발견된 Don Otto 광산에서 우라늄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함.
- Don Otto 광산에서는 연간 30톤의 우라늄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재 아르헨티나 원자력 발전소 Atucha I와 Embalse에서 사용하기 위해 약 \$3,600만의 수입우라늄을 대체하게 될 것임.



- 또한 새로 발견된 다른 광산들을 통해 현재 카자흐스탄 등에서 수입하는 연 120톤의 우라늄 전량을 대체할 것임.
- 아르헨티나는 자국 내에서 우라늄을 생산함으로써 50%의 비용절감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를 얻게 됨.
- 동 우라늄 생산계획은 아르헨티나 원자력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정부는 지난해 이 프로젝트에 8년간 약 \$85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아르헨티나는 캐나다와 원자력발전소 4개의 건설에 대한 협약을 맺고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El Pais, 2007.8.1)

EUROPE, MIDDLE EAST & AFRICA

□ 가스프롬, 벨로루시 가스 공급 45% 감축 위협

- 가스프롬은 8월 2일 벨로루시가 가스대금 \$4억 5천만을 미지급할 경우, 3일자로 벨로루시로 공급하던 가스의 4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벨로루시는 8월 3일 가스대금의 일부인 \$1억 9천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다음 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히 가스프롬의 공급취소 결정은 일시적으로 철회되었음.
- ※ 가스프롬은 지난 1월 천연가스 가격을 1,000 m³당 \$46에서 \$100로 인상하였고, 벨로루시는 이 인상분 지급을 미루어 왔음.
- 이로써 러시아-벨로루시 간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러시아 정부가 가스 공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러시아에서 서유럽국가로 공급되는 가스 중 20%가 벨로루시를 통과하고 있음.
- 가스프롬은 벨로루시 가스공급 회사인 Beltransgaz를 인수하여 서유럽 에너지 공급경로인 벨로루시의 에너지자산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음.

(Timesonline, 2007.8.2), (AFP, 2007.8.3)



□ OPEC, 적극적 유전개발

- OPEC은 적극적인 유전개발로 지난 20년 사이 가장 많은 유전을 가동 중이라고 밝힘.
- OPEC은 '06년 모두 336개 유전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이는 '05년에 비해 11.5% 증가한 규모로서 '82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임.
- OPEC은 지난해, 전년에 비해 22% 늘어난 \$6,500억의 기록적인 석유 수입을 올리는 가운데 유전개발에도 대거 투자했다고 밝힘.
- 우드 매킨지사는 OPEC이 유전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기존 유전의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투자하고 있다고 전함.

(Financial Times, 2007.7.31)

□ 스페인, 교토의정서 이행 어려울 전망

- 스페인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한 '08~'12년 에너지 프로젝트 실행에도 불구하고 '12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90년 대비 37%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스페인의 '12년 이산화탄소배출량은 현 수준 대비 11%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목표인 '90년 대비 +15%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미달성 22% 중 2%는 삼림조성으로 감소가 가능하나, 나머지 20%는 20~30억 유로를 투자하여 배출권을 구입해야 할 것임.
- 스페인은 '08~'12년 에너지 프로젝트에 23억 6,60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8,790만 toe에 해당하는 '06년 전력수요량의 60%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은 2억 3,800만 톤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동 프로젝트는 운송과 산업, 건물, 주거 및 사무용 설비, 농업, 공공 서비스, 발전소 등의 7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El Mundo, 2007.8.1)



1. 석유수급 불균형 지속 전망

□ 개요

- 최근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세계 석유수요는 고유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급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OPEC의 감산결정 이후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공급우려 확대로 국제 선물유가(NYMEX-WTI 기준)는 8월 1일 \$78.77로 최고치를 경신함.

□ 세부내용

- 7월 IEA가 발간한 'Medium-Term Oil Market Report'에 따르면 세계 석유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세계 석유수요는 올해 약 8,600만 b/d로 전년보다 153만 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2년에 9,600만 b/d에 이른 후 '30년에는 1억 2,000만 b/d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는 고유가가 세계 석유소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급능력의 부족으로 현 수준의 고유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바이오연료 공급이 '12년까지 '06년 수준의 두 배 이상인 175만 b/d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석유수급 불안을 완화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진단되며, 오히려 옥수수과 식료품 가격상승 우려가 제기됨.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IEA의 이러한 비관적인 보고서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현재의 고유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고 비판함.
- 미국 National Petroleum Council(NPC)은 'Facing the Hard Truths about Energy'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석유공급 부족에 따른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세계 석유매장량은 13~15조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경제성과 기술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일부만이 개발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NPC의 이러한 추정에는 'Peak Oil Theory'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증가하는 석유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에 따라 대체자원 개발과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 Peak Oil Theory는 '50년대 미국 지질학자 M. King Hubert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석유 생산량이 최고점에 이른 후 계속 감소한다는 이론으로, 현재 세계 석유생산이 최고점 근처에 있거나 이미 지나쳤다고 판단됨에 따라 더 이상 생산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시사점

- 석유 수급불안에 따른 고유가로 해외자원개발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석유 가채매장량이 추가적으로 확보된다 하더라도 개발비용 증가로 향후 유가는 \$70 이하를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
- '30년까지 전망된 석유수요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세계 석유공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며, 이 기간 유가상승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대체에너지 개발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 추진계획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미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임.

(EEnergy Informer, 2007.8)

2. '06년 LNG Market Review

□ 개요

- '06년 세계 LNG 수요는 '05년에 비해 10.8% 증가한 1억 5,88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07년 LNG 수요는 '06년 대비 10% 증가한 1억 7,5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 LNG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06년 신규 생산설비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주요 원인은 건설비용의 가파른 상승과 사업파트너 문



제, 환경 및 지정학적 문제 등임.

□ 세부내용

○ 유럽 LNG 수요

- 유럽 LNG 시장은 가장 높은 증가율('06년 15.1%)을 기록하였음.
- 스페인은 유럽의 최대 수입국으로 유럽 총 수입의 40%를 차지하였으며, 연도별 증가율은 '05년은 29%, '06년은 3%를 기록함.
- 프랑스는 유럽에서 두 번째 수입국으로 '05년 20%, '06년 13.7%의 증가율을 기록함.
- 영국 또한 주요 LNG 수입국으로, Isle of Grain 인수기지의 운영 첫 해에 260만 톤을 수입하여 1단계 설비용량인 330만 톤에 근접함.
- 잉글랜드 북동지역에 위치한 Excelerate's Teesport 인수기지에서도 '06년 2월 첫 카고를 인수하였으며, 웨일즈 남서지역 Milford Haven에 위치한 Dragon 터미널은 4/4분기에 운영될 예정임.

○ 아시아 LNG 수요

- 아시아 LNG 소비증가율은 '05년에는 4.8%를 기록한 반면, '06년에는 11%를 기록하여 유럽에 이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일본은 '03년 원자력 발전소 문제 이후로 LNG 소비가 증가하다가 '06년 가장 높은 증가율 7.2%를 기록함.
- 한국은 '06년 13.2%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상반기 +30%, 하반기 -3.5%를 나타내었는데, 하반기 감소의 주요원인은 4/4분기에 날씨가 비교적 온난하여 가스소비의 50%를 차지하는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난방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 대만은 '06년 8.6%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카타르 RasGas 프로젝트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08년부터 신규 LNG가 공급될 예정임.
- 인도는 '04년 첫 LNG 카고를 수입하였으며, '06년 620만 톤을 기록하여 세계 7위 LNG 수입국으로 성장함.



세계 LNG 교역현황(2006년)

(단위 : 백만 톤/년)

	알래스카	호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부다비	카타르	오만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트리니다드	나이지리아	기타	계
일본	1.17	12.16	6.50	13.99	12.02	5.31	7.48	2.37	0.18		0.51	0.33	0.17		62.19
한국		0.58	0.79	5.06	5.59		6.74	5.44	0.25		0.99	0.05	0.12		25.61
대만		0.22		3.23	3.30		0.38	0.20	0.12		0.42	0.06			7.71
인도		0.12			0.06	0.06	5.19	0.19	0.06		0.42	0.06			6.16
중국		0.75													0.75
프랑스							0.43		5.19		1.83	0.05	3.34	0.13	10.96
스페인		0.06					3.88	0.44	2.76	0.52	3.15	2.43	5.31	-0.18	18.37
포르투갈													1.74		1.74
터키									2.59				0.81		3.40
벨기에					0.05		0.31		2.21		0.30	0.12	0.18		3.15
이탈리아							0.03		2.26		0.06			0.05	2.39
그리스									0.41						0.41
영국							0.05		1.35		0.66	0.50			2.55
노르웨이											0.06				0.06
미국									0.36		2.45	7.99	1.18		11.98
푸에르토리코												0.53			0.53
도미니카												0.25	0.00		0.25
멕시코							0.06				0.06	0.17	0.30		0.59
계	1.17	13.88	7.30	22.28	21.02	5.37	24.54	8.64	17.72	0.52	10.61	12.60	13.14	0.00	158.79

출처 : LNG Focus

- 중국은 '06년 5월 호주로부터의 첫 LNG 카고가 광둥 인수기지에 공급됨에 따라 16번째 LNG 수입국이 되었으며, 총 수입물량은 70만 톤을 기록하였고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태평양 주요 LNG 수출국의 '06년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중동 또한 아시아 국가의 수요증가분 모두를 충족할 수 없어, 아시아 LNG 수입국은 이를 위해 대서양 생산국과 구매계약을 체결함.
- 아시아 수요증가분의 1/3에 해당하는 61카고(350만 톤)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트리니다드, 알제리로부터 공급(이집트 36카고, 트리니다드, 알제리 각각 10카고, 나이지리아 5카고)되었으며, 이집트의 경우 아시아로의 수출물량은 총 생산량의 20%를 차지함.
- LNG 공급
 - '06년 1/4분기 및 4/4분기에 LNG 생산량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 카타르는 '97년 1월 일본 추부전력회사에 첫 LNG 카고를 수출하였으



며, 그 후 급속히 성장하여 '06년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됨.

- 카타르 RasGas의 제5 트레인에서 '06년 12월 생산이 개시됨.
- 알제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06년 생산이 감소한 반면 카타르의 생산은 17.5% 증가하였고 향후 5년간 생산능력 4,680만톤을 갖추어 선두를 유지할 전망이다.
- 호주, 오만, 이집트, 트리니다드, 나이지리아, 브루나이는 '06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알제리, 알래스카, 아부다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생산의 감소 또는 소규모 증가를 기록함.
- 나이지리아 LNG 제6 트레인은 '07년 말에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며, 카타르가스II 프로젝트의 연간 780만톤 규모의 트레인에서부터 첫 카고의 선적이 '07년 4/4분기에 예정되었으나 '08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임.
- 적도기니와 노르웨이의 신규 플랜트 건설로 '07년 생산량의 증가가 전망됨.

□ 시사점

- 아태 LNG 시장에서의 수급불안이 중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LNG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도입경쟁력 강화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LNG Focus, 2007.2)

3. 유럽의 에너지시장 개방 난항

□ 개요

- 지난 7월 1일에 실시된 EU 에너지시장 전면 개방은 EU 회원국들의 의견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부내용



-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EDF와 Suez의 자회사인 Electrabel이 대규모 전력소비자들과 장기계약을 맺어 에너지시장 개방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동 기업들은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었음.
 - 반면 이는 발전 및 송배전, 판매의 분리를 요구하는 EU의 원칙에 위배되어 EU 집행위원회는 수차례 프랑스에게 경고한 바 있음.
 - EU의 소송제기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60여개의 대규모 전력소비자들이 구성한 Exeltium 컨소시엄은 EDF와 15년~20년의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EU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슬로바키아는 EU의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생산과 유통의 완전한 분리가 전력 및 가스시장 개방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EU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전력 및 가스가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영국과 스웨덴, 스페인은 EU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

□ 시사점

- 유럽의 에너지시장 자유화 정책은 일부 회원국 및 에너지회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를 타개해가는 EU의 사례는 향후 국내 에너지시장의 개편과 동북아지역 국가간 에너지협력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므로 향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La Tribune, 2007.7.30), (Le Monde, 2007.7.30)



1. 호주 LNG 프로젝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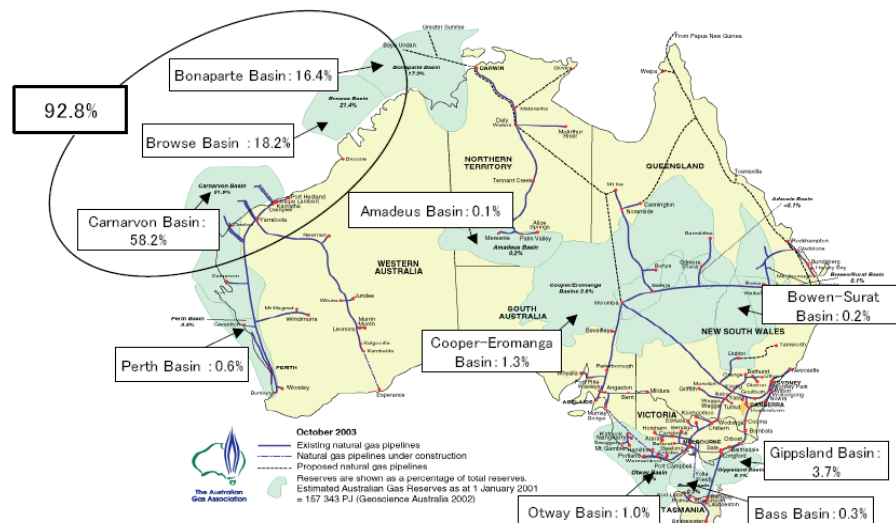
□ 개요

- IEEJ(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가 7월 '호주의 LNG 프로젝트 동향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발표를 통해 최근의 호주 LNG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위험요소를 분석함.

□ 세부내용

- 호주의 LNG 사업현황
 - LNG 수출은 '89년 North West Shelf(NWS) 프로젝트에서의 LNG 생산으로 시작되었으며, '05년 LNG 수출량은 1,141만 톤으로 대부분이 일본(88%)과 한국(7%)으로 수출되고 있음.
 - 새로운 LNG 시장으로서의 인도와 중국, 북미 서해안의 부상 및 인도네시아 LNG 수출량 감소 등으로 아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LNG 공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가 유망한 LNG 공급국으로 주목받고 있음.

호주 가스매장지 및 가스매장량 비율('04년)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러시아 47조 8,200억 m³, 카타르 25조 7,830억 m³, 인도네시아 2조 7,600억 m³, 말레이시아 2조 4,800억 m³ 임.



○ 호주의 LNG 공급잠재력

- '06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조 5,200억 m³이며, 대규모 매장지는 주로 Western Australia(WA) 및 Northern Territory(NT)지역에 위치하며, 매장량의 약 93%가 북서해안에 있음.

○ 천연가스 생산 및 LNG 수출 전망

- 호주정부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천연가스 생산량은 '30년 1,418억 m³이며,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LNG 수출량은 '30년에 969억 m³(7,074만 톤)으로 연평균 7.7%의 성장률로 증가할 것임.

○ LNG 프로젝트

- '89년 NWS 프로젝트에 이어 '06년에 북부의 Darwin 프로젝트가 호주 제2의 프로젝트로 추진됨.
- 이 외에도 NWS 제5트레인과 Pluto, Gorgon, Browse, Sunrise, Ichthys 등 다수의 LNG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음.
- 생산능력은 신규 프로젝트와 기존 프로젝트를 합하여 연간 최대 7,110만 톤에 이를 것이며, 이런 추세라면 호주는 '10년에 카타르와 비슷한 LNG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호주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리스크

- 비용상승 : 세계적으로 자원개발이 증가하고 있어서 자원개발에 필요한 원자재와 노동력 등의 비용이 증가됨.
- 주(州)내 우선공급정책 : '06년 10월부터 Western Australia 주정부는 가스생산 사업자에 대해서 내수용으로 각 프로젝트의 15% 상당의 천연가스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음.
- 환경문제 : 생태계 보호 및 원주민 유적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사보고나 대책수립이 사업자에게 요구되고 있음.



호주의 LNG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운영자	위치	생산능력 (만톤/년)	생산개시 (예정)
기 존	Darwin	ConocoPhillips	Darwin	350	2006년
	NWS(제1~2트레인)	Woodside	Burrup반도	500	1989년
	NWS(제3트레인)			250	1992년
	NWS(제4트레인)			440	2004년
건 설 중	NWS(제5트레인)			440	2008년말
계 획 중	Pluto	Woodside	Burrup반도	500~600	2010년말
	Browse		Browse Basin	700~1,500	2012~14년
	Sunrise		-	700	-
	Gorgon	Chevron	Barrow	1,000	2011년말
	Pilbara	BHP Billiton	Onslow	600	2011년말
	Timor Sea LNG (Tassie Shoal)	Methanol Australia	티모르해	300	2011년
	Ichthys	Inpex	Browse Basin	600	2012년
합 계				6,210~7,110	

출처 : Mineral and Energy(2006년 11월),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

□ 시사점

-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호주는 안정적인 LNG 공급지로서 기대되고 있는 만큼 호주의 자원개발 프로젝트 및 에너지정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호주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 및 정책변화 등의 외적 리스크를 고려한 개발전략이 요구됨.

(IEEJ, 2007.7)